

2025년 05월 29일(목) 시청자위원회

참석

회사 : 대표이사, 경영심의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 콘텐츠센터장, 보도센터장

위원 : 강문식 위원장, 박병희 위원, 박성주 위원, 박병현 위원, 조애숙 위원, 나민수 위원, 박소정 위원, 박경숙 위원, 박종일 위원, 박배연 위원, 이지호 위원

위원장

파크 1538 전시회, 전시물품, 지역 철강산업의 위엄 느낄 수 있었음, 장소 마련 감사, 대선 정국이 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에 MBC 네트워크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대선 토론 시청률, 유튜브 실시간 동접자 수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음 국민들이 높은 신뢰감으로 mbc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기쁨, 선거를 지역민들과 잘 마무리하기를 기대함.

대표이사

다음 주 이례적으로 조기대선 실시 및 새 정부 출범. 여수 산단, 산업계 전반에 대한 정부 대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함. 여수는 위기대응지역으로 선정돼 있으나 근본적인 산단 대책이 없음. 좋은 대책이 나와서 산단 기업들이 일어설 수 있고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좋은 대책이 나오길 기대함.

콘텐츠센터장

5월 정규 프로, 특집 프로 제작 지속. 트로트클라쓰 23일 여수 버스킹편 녹화, TV제작물로 편집해 방송 예정. 본격적인 특집 제작 시작함. 여름엔 고흥 관광특집 제작 및 방송 예정, 다음 주 여수관광특집 방송 예정.

섬마을 여행사 시즌2 본격 제작 시작. 사도·추도·손죽도 촬영해 제작물 6월에 선보일 예정. 여수 섬특집 2부작 제작 시작. 지역MBC공동기획 '한국의 둘레길' 금오도편 촬영 및 후반기 작업 진행 중.

AI솔루션 교육 관련 PD, 영상촬영감독 교육 수료. 유튜브 대선 정국 동접자 1만 명 이상 기록. 매년 진행하는 방송평가 관련하여 자료 작성 및 재난방송 현장점검 대응 준비 중.

6월 정규프로그램 제작 지속, 트로트클라쓰 공개홀 공개녹화 예정(6/17~18), 특집물 촬영 지속할 예정임.

이전회의 반영 내용 관련하여, 섬박람회 관련 고품격 프로그램 제작, 지역민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대선 인터뷰 지속 실시, 산단 위기 관련 라디오 전망대 코너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 중. 지역 맞춤 캠페인 및 영어자막도 준비 중.

보도센터장

6월3일 대선 관련 뉴스 집중 보도. 각 당, 후보별 공정성 있게 보도 중. 여수산단위기대 응지역 지정, LG화학 사택 철수, 섬박람회 관련 기획 보도 지속해서 취재하여 보도 중. 순천대90주년, 빈집문제, 여성일자리박람회 관련 취재 실시.

6월은 지역관련 공약,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내용, 산업용 전기 요금 관련 보도 취재 예정, 잊혀진 섬 특집기획으로 지속적으로 취재 예정, 진남관 재개장 관련 보도, 보도특집 제작 지속,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는 대선 관련 보도 지속.

방송사업센터장

여수 거북선축제 잘 마무리함, 낭만·청춘버스킹 지속해서 운영, 정채봉문학상 7월말까지 공모 진행. 여수아카데미 6월에 준비중, 뮤지컬 명성왕후 예매율 90%이상 판매, 7월 공연 준비, 순천야광축제-나이트런 8월 16일 예정.

조애숙 위원

민주당 대선 지역 관련 공약 원론적이고 추상적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빈약하게 보인다. 지역 관련 공약 취재 필요하다. 섬박람회 성공적인 유치 위한 본관계사 네트워크 활용한 프로그램 제작(뮤직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기대한다.

나민수 위원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이후 한 달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음. 취재 부탁드립니다. 치매, 지체장애인 실종사건이 관내 50건 이상 발생. 스마트태그 활용해서 위치 파악.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예산 확보 측면에 대한 애로사항 있음.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주길 바람. 경제상황이 안좋을 때 사기범죄가 발생함. 온라인 범죄(중고물품 등) 보이스 피싱 등 대규모 사기집단 등장 등 관련 내용 취재 필요함.

박병희 위원

라디오 음영지역 구간이 많아 타 지역방송의 채널이 더 잘 잡히는 경우가 있음. 잡음 발생이 많아 확인 후 조치 바란다. 관련 내용 처리 필요. 영어자막 준비 관련 내용 좋음. 유학생 등 관내 외국인을 위한 좋은 시도라 생각.

박성주 위원

곧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음. 여수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장마철 대비 예방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당장의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 것은 큰 문제라 생각. 관내 다른 지역도 재난 재해 대비 잘 하고 있는지 다뤄볼 필요가 있음.

박배연 위원

정책을 강조하는 대선이 아니다 보니 공약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평가하고 지역민의 민

심과 평가가 반영하는 취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지호 위원

주민들이 살기 좋고, 포용성과 개방성을 가진 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 명품 도시라 생각한다. 또한, 문화예술관련 자산을 보유한 도시가 명품도시라 생각.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가 주목받고 있음. 많은 투자로 관광객을 유치하여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함. 우리 지역도 이와 같은 준비를 여러 가지로 시도하고 있음. 방송에서 이러한 시도와 미래 세대를 위한 내용을 잘 다뤄주길 기대한다.

박병현 위원

섬특집 '섬 도를 넘는 사람' 영상미와 출연진이 이색적이어서 좋았으나, 섬의 독특한 특색이 드러나지 않아 아쉬웠고, 출연자의 내레이션이 너무 많아서 집중이 되지 않았음. 인구소멸과 관련하여 소멸 해소를 위한 노력 부재(기성세대의) 예시를 들면 지역 의료 전문 인력 부족문제 관련하여 지역 대학 재정문제로 인한 폐교로 관련 인원TO를 방치하고 있음. 선거철만 관심을 두는 게 아쉬움. 지속적으로 다뤄주길 기대한다. 지역의사제 관련 공약 관련하여 공약 현실성 부재, 공공의대 관련 공약 시도지사 추천문제 등 선발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등 관련 내용 심층 취재 바란다.

박소정 위원

기업과 일반시민 사이의 괴리로 인해 제철업과 여천산단 기업이 무슨일 하는 지를 모르고 있었음. 아는 만큼 공감하고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언론에서 포스코가, 여수산단이 우리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지 다뤄준다면 지역과 함께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취재 내용이 관내에서도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움. 대선국면에서 국민의힘, 민주노동당, 개혁신당 등에 대한 다양하게 다뤄야 했는데 아쉽다. 또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담은 보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공약에 대하여 분석해서 공약에 대하여 우려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뉴스앤이슈 토크쇼는 출연자가 편중되어 있고, 내용이 일회용으로 끝나고 후속 내용이 이어지지 않아 아쉽다. (예시 지역연결형 의료체계 어떻게 이어갔는지.)

어바웃우리동네 각 분야의 곳곳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라 좋음.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받아서 리포트에 실어서 나가는 내용이 있는데 현장감이 부족함. 사전에 취재내용을 확인 후 활용하기를 바란다.